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co.kr

- ✓ 카타르가 LNG 캐리어 발주를 연내로 확정 지음
- ✓ 현대중공업은 LNG 추진선 수주가 임박함
- ✓ 4분기에는 양질의 수주로 잔고를 빠르게 채워갈 전망

Issue Comment

4 분기 수주 기대감이 더 높아진 조선

여름 휴기가 끝난 이후 수주 모멘텀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사들에게 4분기 시작과 동시에 호재성 뉴스가 잇따르고 있음. 당초 카타르페트롤리엄에서 발주할 LNG 캐리어는 카타르 당국이 직접 발주할지, 용선 계약을 할지 고심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자 카타르페트롤리엄 CEO인 사드 빈 세리다 알 카비가 2019년 내로 수주 의지가 확고한 3곳의 조선사에 발주를 할 것임을 못박으며 연내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그리스의 캐피탈하운드로부터 LNG 추진 VLCC를 확정 물량 10 척, 옵션 물량 4 척으로 조만간 수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기존 VLCC 대비 15% 가량 선수가 높은 LNG 추진선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이익 개선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수주 물량이 될 개연성이 높음.

한국 조선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주 목표 달성을 이룬 가운데 4분기에는 LNG 캐리어나 LNG 추진선과 같은 양질의 수주로 빠르게 잔고를 채워나갈 것으로 전망됨

4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카타르발 LNG 캐리어 물량

LNG 추진 VLCC 까지도 대량 수주 전망

조선 3사, 카타르 LNG 운반선 100 척 연말에 쓸어담을 기대 부풀어

(전략) 카타르 에너지장관이자 카타르페트롤리엄 CEO(최고경영자)인 사드 빈 세리다 알 카비는 이런 추측을 일축했다. 알 카비 CEO는 글로벌시장 조사기관인 S&P 글로벌플래츠와 인터뷰에서 내년 발주설과 관련해 “그것은 단지 설일 뿐”이라며 “수주의지가 확고한 입찰자가 3곳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몇몇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해운매체 헬레닉시핑뉴스(Hellenic Shipping News)가 전했다. (후략)

현대重, 1조 8000 억 LNG 유조선 수주 '초읽기'

현대중공업이 1조 8,450 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초대형유조선(VLCC)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중략)...10 척의 건조 이후 상황에 따라 4 척의 건조가 결정되는 계약으로 알려졌다...(중략)...LNG 추진 VLCC의 선박당 가격은 1 억 1,000 만달러(약 1,318 억원)다. 기준 선박유 추진 VLCC의 가격인 9,600 만달러(약 1,148 억원) 대비 15%가량 가격이 높다. 14 척을 모두 계약할 경우 총 수주 규모는 1조 8,450 억원에 달한다.(후략)

자료 : 비즈니스포스트(2019-10-04), SK 증권

자료 : 서울경제(2019-10-04),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